



안전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앞장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 10월 19일 충남 대둔산에서 '2012 한마음걷기대회' 및 '노사화합결의선포식'을 개최했다. 신진규 회장과 김동엽 노조위원장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협회 임직원들은 상호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협회의 발전과 산업안전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신진규 회장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협회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은 우리나라 산재감소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협회는 건전하고 건강한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기대, 담현실학관 개관식 및 전시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지난 10월 10일 이기권 총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진규 회장(사진 맨 오른쪽)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담현실학관 개관식 및 졸업연구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기대는 1991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전액 정부 출연해 설립한 학교로, 공학과 HRD(인적자원개발) 중심의 4년제 특수목적 대학이다. 이번 개관한 담현실학관에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비롯해 실습실, 세미나실 등의 학습·연구시설이 들어서 있다.

경남서부지회, 통영지청과 자율안전문화 확산 노력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지회장 박정규) 통영출장소(출장소장 이상욱)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이 주관한 '사망재해 감소 안전캠페인'이 지난 10월 22일 고성조선 특구 내에 위치한 (주)천해지 정문에서 실시됐다. 캠페인에는 협회 임직원들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사내협력사 대표 전원(70여 명)이 참여했다. 통영지청 정효철 산재예방지도 과장은 "조선경기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고생하시는 관리감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사업장에 자율 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위해 적극 협력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지회(지회장 채수현)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시회장 강기웅)가 인천지역의 산재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가 회원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실시할 때 인천지회에서 업무 수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채수현 지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있어 경험이 많은 양 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전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미래의 안전전문가 양성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지난 9월 2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구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협회는 산학협동의 연계적인 발전과 미래의 안전관리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여식에서 신진규 회장은 “미래의

우수한 산업안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산재예방의 지름길”이라며 “앞으로 관련 학생들이 학업에만 정진해 안전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협회에서 물질상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한국교통대, 부경대, 한경대의 안전관련 학과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회를 통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부산지회, 사망재해 감소 위한 릴레이 캠페인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부산지회(지회장 전우중)가 지난 10월 11일 부산 신평역을 시작으로 녹산공단(10월 18일), 금사동역(10월 25일) 등에서 릴레이 안전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망재해감소 특별 강조기간을 맞아 실시된 것으로, 산업현장 근로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부산지회의 관계자는 “지회 전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및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자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발표



강원도 용평에서 지난 10월 11~12일 개최된 한국안전학회의 201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안전관리자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211개소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자의 기업체 특성, 근무환경 특성,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도, 안전관리자 겸직 업무, 분야별 자격증 보유현황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진행한 협회 김종인 차장은 “안전관리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기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등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대구지회, (주)화신과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전개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회(지회장 장동주)가 지난 10월 15일 대구 경북지역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는 경북 영천시 도남공단에 소재한 (주)화신에서 지회 직원 및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참석자들은 안전 홍보물 등을 출퇴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며, 작업전 점검 및 불안정한 예방 등 안전활동을 강조했다. (주)화신 서동화 과장(안전관리자)은 “평소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산업현장의 안전이 확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및 협착·낙하·화재사고 예방 등에 대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